



Unio Mystica와 Communio mystica :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소고

Unio mystica and Communio Mystica
: A Criticism on Christian Mysticism

전광식

| 신학과 교수, 철학박사 |

글머리	234
입문: 한국교회의 신비주의와 영성주의 운동의 흐름	236
I. 신비주의의 어원과 정의	238
II. 신비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경적 기초	240
III. 기독교 신비주의의 등장배경과 역사	242
IV. 영성주의-신비주의의 형태	245
V. 신비주의의 기본과정	248
VI. 신비주의의 역사적 전개 (I) - 기독교초기	251
VII. 신비주의의 역사적 전개 (II)-중세 이후 전개된 신비주의의 제 형태	259
VIII. 신비주의의 문제점과 그 비판	272
IX. 신비주의에 대한 대안	278
결론	280

전광식 교수

고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독일의 Regensburg대, München대, 영국의 Oxford대에서 철학과 고전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밀레니움이 시작되는 해에는 Harvard대학에서 고전학을 연구하다.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 가지 생각」(1987),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1995),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1997),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1998), 「고향: 그 철학적 반성」(1999), 「신플라톤주의의 역사」(2002), 「가난과 부요의 저편」(2004),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2005), 「경건의 길」(2006), 「성경적 환경론」(2006), 「기독교대안교육과 대안학교」(2006) 등의 저서가 있다.

고신대 교무처장,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학과에서 철학사와 신학사상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뱅쿠버의 Trinity Western University/VIEW의 객원교수와 이 땅에 참다운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독수리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지만 평생 화림동(花林洞)계곡에 있는 고향 집 소소가(蕭齋家)에서 학문의 숲길을 걷고 사색의 들녘을 산책하고 싶어 한다.

요약문 :

1. 목하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영성주의 내지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다.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영성주의와 신비주의의 흐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금욕주의적-수도원적 공동체주의적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수도원제도, 기도원운동, 나아가 각종 공동체 운동, 금식 등 금욕적 수행의 방식, 그리고 최근의 내성과 관성기도의 형태 등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경건주의적-부흥주의적 흐름이다. 이런 경건주의적 기독교는 다소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순절 운동, 심령대부흥회, 찬양열광주의, 빈야드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특히 오늘날 말씀이 결여된 간증중심의 집회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흥분위주의 찬양중심집회로 생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는 심리주의적-정신분석학적 흐름이다. 이런 프로이트의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의 다양한 운동에 교묘한 위장술로 숨어 있는데, 특히 기독교상담학, 가정상담, 다양한 교육이론, 트레스디아스운동 등에 있다.

2. 신비주의는 경험에 근거한 신인식, 신직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일 ('cognitio dei experimentalis')에 관한 사상을 의미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운동, 영성주의운동은 *theoria*와 *praxis*, *vita contemplativa*와 *vita activa*를 다 포함하지만 협의적 의미에서는 개인적, 심리적, 내면적 등의 성격을 지닌 심리영성운동을 의미한다.

기독교신비주의자들이 신악성경에서 찾는 신비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구절, 갈2: 20, 2. 요일 3: 2, 3. 벨후 1: 4 이다.

이상의 세 구절은 각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게 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됨'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는 플라톤적, 피타고라스적, 스토아적, 신플라톤주의적 사상이 놓

여 있고 멀리는 힌두교 등의 동방종교의 신비적 요소와도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플라톤주의이다. Plotinos와 Proklos,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의상을 걸친 Proklos”라고 불리운 Pseudo-Dionysius의 사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3. 이러한 기독교 신비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1) 심리주의와 의식신학, 2) 탈 신학화와 탈교리화, 나아가 성경적 기초의 부재 내지 약화, 3) 이교적 내지 세속철학적 기초, 4) 신앙고백적, 종교적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 5) 영적 자기도취와 거짓된 영의 함정, 6) 영적 권위부정과 심리주의적 성경해석 등이다.

이에 신비적 신인합일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즉 *unio mystica*보다 *communio mystica*, 즉 *communio cum Deo*를 추구해야 한다.¹⁾ 이것은 사람이 궁극적인 실재 안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이다. 말하자면 내 자아에 대한 성령의 온전한 지배, 주님이 내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영적 교제이다. 말하자면 영성운동보다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주요어 :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신비술, *unio mystica*, *communio mystica*, 부정신학, 영성주의

1) *unio mystica*라는 용어는 Calvin의 구원론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뜻하는 용어로 궁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신비주의 사상에서는 이를 신인합일의 신비주의적 체험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Calvin의 뜻은 논자가 사용한 *communio mystica*와 유사하다.

Unio mystica and Communio Mystica: A Criticism on Christian Mysticism

1. In recent years, there are spiritualistic and mystic trends in Korean Church. The spiritualism and mysticism of the Korean Church may be divided into three major trends: firstly, ascetic-monastic trend, from which monastery system, prayer house movement, various community movements, ascetic exercises, and contemplative prayer came out; secondly, pietistic-revival trend, from which pentecostal movement, awakening movement, enthusiasm of praising, and Vineyard movement flew out; thirdly, psychologic-psychoanalytic trend, which is theoretical background of some contemporary christian counselling, family ministry, educational theories, and Tres Dias Movement.

2. Mysticism means an idea on *cognitio Dei*, *visio Dei*, and *unio mystica* based on religious and semi-religious experiences. In their broad senses, movements of mysticism and spiritualism include *theoria* and *praxis*, *vita contemplativa* and *vita activa*.

The biblical grounds are, according to mystic theorists, Gal.2:20, 1 John 3:2-3, 2 Peter 1:4. These passages tell respectively ‘Christ in me’, ‘Becoming like God’, ‘Participating in the divine nature’.

However, christian mysticism has non-biblical back-grounds as

Platonism, Pythagoreanism, Stoic philosophy, and above all Neoplatonism. Its some basic ideas go back so far as to oriental religion as Hinduism. The Neoplatonists, Plotinus, Proclus, and Pseudo-Dionysius Arepagita, influenced definitely the Western tradition of Mysticism as well as the Byzantine. Pseudo-Dionysius has been called a 'Proclus in a christian garments'.

3. Christian Mysticism must be criticised at the following points:

1) Theology of Consciousness(Bewusstseinstheologie), 2) De-theologization and De-doctrinization, furthermore weakening of the biblical basis, 3) Non-christian and secular philosophical foundations, 4) Dangers of religious relativism and Pluralism, 5) Spiritual narcissism and the pitfall of false spirits, 6) Denial of spiritual authorities and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Bible etc.

Therefore, biblical christians have to seek out not mystical unification with God, but deep communion with him, not *unio mystica*, but *communio mystica*, exactly speaking, *communio cum Deo*.

While *unio mystica* signifies absorbing into God or Ultimate Reality, *communio mystica* indicates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maintaining the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This is, so to speak, whole ruling of Holy Spirit over my heart and my self, and spiritual mystic communion of 'I-in-Christ' and 'Christ-in-me'. In conclusion, we must set not a spiritual movement, but the movement of Spirit.

Keywords:

mysticism, christian mysticism, mystics, *unio mystica*, *communio mystica*, *theologia negativa*, spiritualism

글머리

신정통주의 신학자 Karl Barth는 신학자들을 ‘산행인’에 비유했다. 신학자란 하나님의 말씀의 산을 산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그의 신학적 동료였다가 1934년을 기점으로 자연신학문제와 대히틀러 투쟁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별한 Emil Brunner는 신학자를 적군을 앞에 둔 전방의 ‘초소병’이라고 하였다. 기독교는 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장(戰場)에서 다양한 영적인 적들과 전쟁하는 중이라고 한 것이다.

신학과 기독교란 Barth와 Brunner의 말처럼 늘 말씀이라는 산으로 갔다가 또 전장이라는 현실로 내려와야 하는, 말하자면 말씀과 현장, Text와 Context라는 두 무대를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Brunner의 입술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초기부터 늘 복음을 변증해야 하고 폐로는 영적, 지성적 투쟁을 벌려야 했던 적들을 만나왔다. 초창기 기독교는 유대율법주의, 로마의 황제숭배와 정치종교, 헬라의 철학사상, 바벨론과 애굽계통의 자연종교 등과 싸워왔다. 하지만 이런 적들보다 사상적으로 보다 치열한 전쟁을 벌려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신비주의계통의 사상들이었다. 이런 신비주의사상들 가운데는 영지주의, 피타고라스주의, 오르픽 종교, 헤르메스 종교 등이었다.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유물론을 표방하는 마르크스주의, 진화론과 같은 내재론적 과학사상, 이슬람교나 불교같은 여러 종교 및 사상들과 대치관계에 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적들 가운데는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뉴에이지, 초월명상(TM), 라즈니쉬 바관 사상, 크리슈나르무티사상, 탄트라, 수피즘, 도교적인 신비주의, 기철학 등

이다. 어쩌면 신이교주의(Neo-Paganism)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러한 사상들은 서양에서 기독교를 대체할듯한 기세로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내에서도 이러한 사조들의 영향가운데, 그리고 자생적 요인 등으로 다양한 신비주의 내지 영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에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한국 교회는 다양한 신비주의들이 부활하므로 기존의 정통교리마저 혼들고 신앙과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혼란과 혼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영성주의와 신비주의의 등장배경을 정리해보면

1. 교회의 제도화로 법제화, 정치화, 사회화 등 탈영성적 성격을 극복하려는 시도
2. 교리와 신학 중심의 기독교를 배격하고 열정과 찬양 등 감성주의 경향에 대한 추종
3. 성도의 세속화로 인한 영성적 성격 회복하기 위한 취지
4. 기독교신앙과 삶의 피상성에 대한 비판과 그 깊이를 심화시키려고 함
5.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능력있는 말씀이 약한 것에 대한 반응
6.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대와 학문의 영향
7. 이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영향과 천주교적 사상의 잔재로 인함 등이다.

이러한 배경이해와 함께 이 논문은 먼저 기독교신비주의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특징들을 정리해 보고 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교회 내에 횡행하고 있는 신비주의 내지 영성주의 운동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입문: 한국교회의 신비주의와 영성주의 운동의 흐름

특히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영성주의 내지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다. 이는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현장으로 파고 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영성주의와 신비주의의 흐름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금욕주의적-수도원적 공동체주의적 흐름이다.

이것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은 서양의 후기 고대, 중세이고, 그 사상적 배후는 플라톤주의, 스토아사상, 신플라톤주의이다. 플라톤주의는 육체(soma)를 '감옥(sema)'라고 할 정도로 육체에 갇힌 영혼의 해방을 강조했고, 스토아사상은 플라톤사상을 이어받아 금욕적 삶과 apatheia와 같은 탈욕망적, 초탈의 삶을 지향했고, 신플라톤주의는 신적 일자(to hen)에로의 회귀를 내세웠다. 이러한 흐름은 후기고대와 중세를 지나면서 사막의 은수자들과 수도원의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현대에 이르러 수도원제도, 기도원운동, 나야가 각종 공동체 운동, 금식 등 금욕적 수행의 방식, 그리고 최근의 내성과 관상 기도의 형태 등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경건주의적-부흥주의적 흐름이다.

이 흐름의 시대적 배경은 근세, 중후기로서 무엇보다 그 때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건주의운동에 기인한다. 소위 '신개신교주의'

(Neo-Protestantism)으로 불리우는 이 '경건주의운동'은 종교개혁적 전통의 '머리의 신학(Kopftheologie)'을 비판하며 '가슴의 신학(Herztheologie)'을 표방하였고, 감동과 열정, 기도와 성령충만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근대적 선교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결과적으로 탈신학화, 탈교리화, 심지어 탈 성경화의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당대의 낭만주의 등의 영향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심리주의화와 신학의 의식주의화(Bewußtseinstheologie)로 치달았다. 그 결과 주정주의적 신학이요 근대 탈성경적 신학의 효시인 Friedrich Schleiermacher의 '감정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결정적 일탈형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종교를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서의 교양인들에게 고함」이란 부제를 지닌 그의 *Über die Religion*(1799)은 종교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 해당되고, 경외심, 겸손, 사랑, 감사, 동정심, 회한 등과 같은 감정들의 총합이 경건이요,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종교라 했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기독교 모든 교리를은 심리주의화 내지 의식주의화되는데, 예컨대 「신론」은 곧 인간의 신에 대한 의식이 대치하며, 「죄론」도 원죄나 자벌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건주의적 기독교는 세월이 흐르면서 수용에 있어서 다소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순절 운동, 심령대부홍회, 찬양열광주의, 빙야드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특히 오늘날 말씀이 결여된 간증중심의 집회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홍분위주의 친양중심집회로 생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어울리는 감정주의는 인간적 홍분과 성령충만을 혼동케 하면서 '말씀에의 청종'보다 '내적 감응'을 더 강조하는 그릇된 방향의 흐름이다.

셋째는 심리주의적-정신분석학적 흐름이다.

이것은 앞의 두가지 흐름과 달리 20세기의 학문과 시대정신 속에서 태어났고 그 구체적인 사상적 배경으로는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그의 사상을 변경시킨 Neo-Freudianism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모든 학문의 기초로 심리학을 두고 인간의 행위와 삶의 기초로 인간의식을 둔다. 이것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간파하면서 오로지 심리요법내지 치유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식치료의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프로이트의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의 다양한 운동에 교묘한 위장술로 숨어 있는데, 특히 기독교상담학, 가정상담, 다양한 교육이론, 트레스디아스운동 등에 있다.

I. 신비주의의 어원과정의

1. 어원: '신비주의'의 헬라어적 어원과 그 뜻은 다음과 같다.

$\mu \nu \varepsilon \iota \nu = myein$ = 눈을 감고 귀를 막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감

$\mu \nu \sigma \tau \iota \kappa \circ \varsigma = mystikos$ = 비밀스러운(lat. mysticus)

$\mu \nu \sigma \tau \eta \rho \iota \circ \nu = mysterion$ = 비밀(lat. mystica, mysteria)

따라서 어원적으로 '신비주의'를 정의하면 '내면세계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2. 개념정의

이런 어원적 바탕으로 하여 사상사에서 전개된 신비주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비주의는 경험에 근거한 신인식, 신직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일('cognitio dei experimentalis')에 관한 사상을 의미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운동, 영성주의운동은 *theoria*와 *praxis*, *vita contemplativa*와 *vita activa*를 다 포함하지만 협의적 의미에서는 개인적, 심리적, 내면적 등의 성격을 지닌 심리영성운동을 의미한다.

2) 기독교 신비주의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와 하나되는 신비적 합일(*unio mystica*)을 추구하는 기독교내의 하나의 사상내지 실천이다.

모든 신비론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자와의 하나됨'이다. 신비론의 비밀은 지상적 인간영혼이 절대자와 하나되는, 말하자면 '신인합일'이라는 하나의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한 경험에 놓인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묵상과 명상, 회개와 기도, 금욕과 자기부정, 고행과 순례, 찬양과 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 등이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설교, 그리고 비유들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를테면 산상보훈(마 5-7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연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야말로 기독교본래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제도화되고 정치화된 현실적 제도교회와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신비주의자였으며 성경

에는 이미 신비주의적 내용이 결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II. 신비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경적 기초

1. 이론관련 성경적 근거

기독교신비주의자들이 신약성경에서 찾는 신비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구절이다.

1.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2.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

3. 벤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자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상의 세 구절은 각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게 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됨’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가르침은 얼핏보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중십자상과 일치하는 것 같다.

실제로 기독교 신비주의에는 두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1) 그리스도에의 모방(imitatio Christi) 내지 그와의 완전한 동일화인데, 이는 인간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2)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응시(visio Dei)가 있는데, 이는 신비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고전 13:12)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천관련 성경적 근거

그리고 신비주의적 실천과 결부하여 거론되는 두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1) 고전 12:2-4에 나오는 바울이 본 환상과 그의 소위 ‘3층천 경험’이다. 그는 이 구절에서 ‘십사년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그가 몸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Swedenborg나 New Age 사상가들이 언급하는 신비적 체험의 근거로 도입되기도 한다.

2) 그리고 다른 한가지 신비주의적 경험의 근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다. 비잔틴 신학자에서 Palamas와 Barlaam과의 논쟁에서 주요논제로 나온 이 사건은 변화산정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한 사건이다.²⁾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이 변화를 직접 목도했던 것이다.

2) cf. Jey J. Kanagaraj, “Mysticism” in the Gospel of John: An Inquiry into Its Background, i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20, No. 3 (Autumn, 2001)

따라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신비주의자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의 신비를 목도하면서 체험하고, 나아가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는 실제적 변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기독교 교리는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와 하나되고자 하며, 이성적 수단이나 성경해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얻으려고 열망한다.

III. 기독교 신비주의의 등장배경과 역사

1. 배경과 흐름

1) 기독교 신비주의에는 플라톤적, 피타고라스적, 스토아적, 신플라톤주의적 사상이 놓여 있고 멀리는 힌두교 등의 동방종교의 신비적 요소와도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플라톤주의이다.

기독교신비주의는 신플라톤주의의 요소를 기독교적으로 치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 신비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후기고대에서 서방의 *Augustinus*, 동방의 *Evagrius Ponticus*, *Pseudo-Dionysius*, *Johannes Climacus*는 한결같이 Plotinos와 Proklos 같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2) 무엇보다 서양교회의 신비주의의 뿌리는 어거스틴과 위디오니

시오스인데 이 둘의 공통적 기원은 신플라톤주의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따르고, 위디오니시오스는 프로클로스의 사상을 따른다. *Pseudo-Dionysios*는 ‘기독교의 Proklos’라고 불리울 정도이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 「신비신학」은 Proklos의 *Elementatio theologica*에 결정적으로 의거해 있다.

3) 그리고 동방의 비잔틴 수도 신학에서도 신비주의사상이 만연했는데, 그 가운데 특이했던 것은 중세말 *Hesychasmus*이다. 이 ‘정적주의’(헬라어 *hesychia*는 ‘정적’, ‘고요’의 의미임)에서는 ‘예수기도’(다른 말로 ‘심령기도’)와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배꼽기도’ 등을 통해 신비술이 실시되었다.

독일어로 *Nabelschau*라고 불리워지는 이 배꼽묵상은 헬라어 *omphaloskepsis*에서 온 말이고 그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집중한다는 뜻이다. 13세기 아래 동로마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Simeon der Neuen Theologen*의 전통 가운데 *Hesychasmus*의 기도운동과 명상운동으로 일어났다.

이 운동은 좌정하여 배꼽을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관건은 그런 묵상가운데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빛, 즉 ‘다불산의 빛’(Taborlicht)을 보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인 *Gregor Palamas*는 1341년과 1351년에 열린 두 번의 공의회에서 그런 빛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학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의 논적이었던 *Barlaam von Kalabrien*은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그로 인해 서방의 로마카톨릭교회로 넘어가버렸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 사상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서방세계에 이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스콜라주의자들은 발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런 사상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별의미없는 내성(內省)을 일반적으로 '배꼽묵상'이라고들 칭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지금의 선불교의 선행위와 현대판 배꼽묵상이라고 한다.

4) 서방에서도 여러 수도원들이 신비주의의 중심기관들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 지역의 수도원, 수녀원에서 수녀들과 수도승들은 묵상과 기도에 집중했고,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적 체험에 대해 책들을 펴내었다.

이런 기독교 신비주의가 절정에 달한 것은 후기중세와 근세초기였다. 특히 도미닉수도회에 속한 독일 수도원들에서 신비주의사상이 정점에 달했다. 비록 종교개혁이 카톨릭교회의 전통과 단절했지만 개신교 내에서도 신비주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5) 근세신학에서도 범신론과 부정신학(theologia negativa) 등을 개진함에서 신비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사상가들도 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라는 사상이고 부정신학은 하나님은 '이성의 피안', '인식의 피안', 심지어 '존재의 피안'에 계시므로 그는 이성으로 파악되거나 인식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기술되지 않고 단지 경험되고 직관될 뿐이다. 그리고 기술된다면 현상에 대한 부정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술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나긴 역사에서 신비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지만 그것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사상에 집약된다.

1) 사람은 자기 영혼의 내면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다.

2)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길은 모든 지식을 넘는 묵상, 기도, 내성을 통해서이다.

IV. 영성주의-신비주의의 형태

1. 신비술의 유형들

영성주의와 신비주의의 형태들을 운위할 때에는 흔히 그것의 실천기술인 신비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말하곤 한다.

- 1) 기도유형(육체기도, 심령기도)
- 2) 금욕과 고행유형(금욕적 수행): (사막성자, 기둥성자): 육체의 능력을 약화시킴
- 3) 묵상유형 (자성적, 성경묵상적)
- 4) 활동유형(봉사, 순례)
- 5) 감성유형(찬양, 춤)
- 6) 예식유형: 미사 등
- 7) 성경몰입유형

이것들은 크게 보아 고요하게 좌정하여 행하는 기도와 묵상같은 Vita Contemplativa적인 것들과 활동하는 Vita Activa적인 것들로 구분되기도 한다. 하여튼 이런 신비주의적 수행의 과정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신비체험을 하게 되고(예컨대, 비행(飛行)성자의 경우, 인간영혼이 탈 육체화하여 공중을 유영함), 신인의 신비적 힘일에 이르

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되는 신비적 카리스마(신적 은혜)로는 신직관, 신에 대한 인식, 신현현 경험, 신에 대한 환상, 신적 음성 청취, 신적 성흔 내지 징조, 신과의 합일 경험 등이 있다.

2. 인격적 신비주의와 비인격적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그 성격에 따라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상적 신비주의는 personal한 것인데 비해, 이교적 신비주의내지 이교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이비기독교 신비주의는 impersonal, semi-personal 하다고 할 수 있다.

1) 비인격적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그 개념과 표현에서 판단해 보면 압도적으로 비인격적(impersonal) 내지 반인격적(semi-personal)이다. 인도의 신비주의,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스피노자사상, New England의 초절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적 신비주의와 건강신비주의도 이런 형태이다.

이런 형태들은 신비주의의 일원론적이고 범신론적인 형태이다. 이런 형태들은 비인격주의(impersonalism)를 지향한다. 이런 형태들은 서양신비주의의 역사에서 신플라톤주의의 Plotinus, Pseudo-Dionysius, Eriugena, Jacob Boehme, 심지어 Eckhart 등에서 보인다. 이들이 한결같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궁극적 실재에 대해 심연(Abyss), 절대적인 것(the Absolute), 무(Nothingness), 전체(the All), 초월(the Beyond) 와 같은 용어들이다.³⁾

3) John Wright Buckham, *Mysticism and Personality*, in: *Journal of Religion*, Vol.1, No.6, 608, 1921

2) 인격적 신비주의(Personal Mysticism)

이에 비해 기독교 신비주의는 인격적 신비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격적 신비가라고 할 수 있다. 바울도 어찌면 반성적이고 사변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데 그의 신비주의는 인격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신비주의의 형태를 표방하는 사상가들로는 Augustinus, St. Francis, Bernard of Clairvaux, Eckhart, A Kempis, Luther, Philips Brooks, 그리고 겸손한 신비론을 따르는 지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비인격적 내지 반인격적 신비론을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이다.

3) 이교적 신비주의를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수행의 궁극에 있어서 자아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신비주의의 각 단계에서 자아는 자기 자신을 보다 깊게 인식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확장하기도 한다. 또 낮은 자아를 침몰시키고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되며, 신과의 합일에서 자아의 진정한 실현을 이루한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unio mystica에서는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로지 신의 자아만, 아니면 범신론에서 말하듯 만유신의 자아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아의 소실(unselfing)이라고도 할 있다. 신비주의의 최종단계에서 자아는 절대자의 심연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인격은 절대자의 인격속에 삼켜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힌두교의 현대화에 공헌한 Radhakrishnan이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Brahman에 떨어지는 Atman으로 비유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하여튼 종교적 신비론은 영혼과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신의 임재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달리 말하면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영원한 것 속에서 시간적인 것의 내재를, 그리고 시간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의 내재를 실현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⁴⁾

V. 신비주의의 기본과정

1. 두가지 형태

신비주의는 역사적으로 두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곧

1) 경험적이고 종교적인 신비론: 초기 사막의 수도자들에게서부터 그 이후 14세기까지 이어진 주로 금욕과 청빈, 사랑과 헌신 등을 통한 신비주의.

2)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신비론: 중세말기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 등 주로 독일의 도미닉수사들을 통하여 전개된 것으로 내면세계를 통하여 참다운 자기를 만나고,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신비주의이다.

이 두가지 형태들은 경험과 사변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동적인 특징을 지닌다.

- 1) 일상의 탈피 - 은둔 내지 도피주의의 형태 취함
- 2) 신학과 교리로부터의 탈피 - 이성에서 얻은 지식보다 영적 체험과 내면에서 얻은 진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봄
- 3) 세상에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영혼과 하나님에게 몰입하려 함

4) William Ralph Inge, *Christian Mysticism*, London/New York, 1899, p. 5

2. 신비주의의 일반적인 과정

신비주의자는 천상으로 오르는 마치 *Climacus*의 *Scala paradisi*에서 나타난 대로 사다리같은 길을 추구하게 된다.

1) 이 완전성의 사다리(*scala perfectionis*)는 Inge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⁵⁾

- (1) 정화적 삶(purgative life): 자신의 죄와 추함을 깨끗하게 하고 감각적 지식을 떠나는 준비적 단계
- (2) 진리를 깨닫는 영적 계몽의 삶(illuminative life):
- (3) 신적 진리를 완전히 응시하는 단계 내지 신인합일의 삶(unitive life)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는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단계로 낮은 단계요, 최상의 단계인 마지막 단계는 신에 대한 응시(visio) 내지 엑스타시스의 단계이다.

2) Charles Morris Addison은 일곱단계의 길을 말한다.⁶⁾

- (1) 하나님을 열망함 (the longing for God)
- (2) 영혼이 깨어남 (the awakening of the soul)
- (3) 정화 또는 회개 (purgation or repentance)
- (4) 묵상 (기도, 침묵, 정신집중 등이 포함됨) (contemplation-prayer, silence, concentration) 영혼이 점차 하나님과 en rapport 형성을 이루게 됨

5) ibid.

6) Charles Morris Addis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Mysticism*, 1918

- (5) 영적으로 깨 또는 신적 현전의식 (illumination or sense of the Divine Presence)
- (6) 영혼의 어두운 밤 내지는 절망과 의심에 대한 신비적인 죽음의 기간 (the dark night of the soul or the mystic death-periods)
- (7) 합일의 상태 (the unitive state)- 신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됨

3) 그리고 다른 기독교 신비주의의 과정은 대략 다음의 4단계를 말한다.

- (1) 자기인식의 단계 (self-awareness)
- (2) 자기정화의 단계 (purification)
- (3) 내적광명의 단계 (illumination)
- (4) 신인합일의 단계 (unity)

이러한 상승의 과정은 Dante의 *Comedia Divina*에 잘 나타나는데, 이 책은 역사상 써어진 가장 신비주의적인 문학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신비적 길을 추구하는 순례자 영혼(pilgrim-soul)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독교 신비주의의 과정은 대개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영혼의 회귀과정과 유사하다. 일자(一者)에게서 유출된 영혼은 이성을 거쳐 다시금 일자에로 회귀(epistrophe)하는데, 먼저는 현실세계를 떠나고 다음으로는 감각세계를 떠나고 이성의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일자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비주의적 수행의 과정은 종교에 상관없이 대개 유

사하다. 그리고 그 것의 역사적 내력은 먼저는 고대 힌두교사상에서 나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신플라톤주의와 접목하고 다시금 기독교 세계로 들어와 Origenes와 Augustinus, 그리고 Pseudo-Dionysius 등을 거쳐 동서방의 중세세계로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I. 신비주의의 역사적 전개 (I) - 기독교초기

그러면 이제 기독교신비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기독교 초기에는 다양한 신비주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도피적·고행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1. 신비주의수행의 방식: 순례, 은둔과 고행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형태는 방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금욕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지만, 세속을 도피하여 은둔하면서 고행의 길을 걸은 수행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인 *Didache*에 보면 순례하면서 금욕생활하며 복음전하 순례사도(Wondering Apostles)들이 있었다. 그리고 은둔방식으로는 최초의 사막수도자들로 알려진 사막수도자 Antonius와 Paulus, 그리고 나무 기둥위에서 수행한 주상(柱上)수도자 Symeon 등이 있다.

이렇게 은둔적 신비주의의 길을 걷게 된 배경적 이유로는

- 1)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2) 후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군림하는 종교가 되고 제도화되어 차라리 탈교회적

인 것이 도리어 신령한 자세로 간주되므로, 3)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4) 이 세상은 지나가버릴 곳으로 생각하므로, 5) 성경에 나타난 부자됨과 육체의 정욕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6) 유대교적 전통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7)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8) 천국에서는 순교자 다음으로 수도자가 가장 낫다는 생각 등으로 일어났다.

은둔주의자들은 주로 에굽중부의 사막지역을 수행지로 택했는데, 이곳은 거친 환경에 미신도 많고 또 신플라톤주의적 영향도 있고 하여 고행으로는 적당한 장소로 간주되었다. 이들이 수행하는 방식은 먼저 가정과 물질적 소유를 버리고 은둔하여 식사를 철저히 절제하고,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기도와 명상, 성경에 집중하는 독신과 독거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수행자들을 두고 교부 Origenes는 일상적 도덕이 ‘낮은 도덕’인데 비해, 수도적 도덕은 ‘높은 도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은수자들 차츰 공동으로 생활하는 수도원제도로 옮겨갔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도원들이 모인 수도회로 변화되어가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2. 계단적 신비주의: Johannes Climacus의 *Scala Paradisi*

은수자들이나 수도원에서 이뤄지는 수행의 과정을 고찰하면서 그것을 이론화시킨 저서가 Johannes Climacus의 *Scala Paradisi*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적 수행의 30계단을 얘기한다.

1) Johannes Climacus(ca. 579-ca.650)

후대의 비잔틴사상사에서 Johannes Damaskus와 Maximus 등과

함께 가장 권위있는 학자 및 성인으로 존숭받아온 Climacus는 무엇보다 그의 저작 *Scala paradisi*로 인해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다리의 저자’로 불리워 지기도 한 Climacus는 어려서 일반교육을 받은 후에 시내산(Mt. Sinai)에서 개별적인 은수자(隱修者)로 수도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시내산 수도원의 원조격이 되었다. Damaskus가 철학적 신학에 있어서, Maximus가 교리적 신학에 있어서 권위로서 큰 역할을 했다면, Climacus는 수도적 신학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저인 *Scala paradisi*는 사막의 수도자들의 경험을 발굴하여 수록한 것이다.⁷⁾

Johannes Scholasticus 내지 Johannes Sinaites라고 불리우는 6세기 비잔틴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요 수도자였던 Johannes Climacus (525-606)는 자신의 주저 *Scala Paradisi*에서 수도자들이 행해야 하는 신적 상승의 수행과정을 적고 있다. 시내산의 수도승이었던 그를 열렬히 존경하던 Joannes Rathiou의 요청으로 6-7세기 금욕주의적인 동방정교사상의 고전으로 알려진 이 저서를 남겼다.

시리아에서 출생한 그는 수도원생활을 동경하여 약관 16세에 수련 수사가 되었고 Martyrius라고 알려진 수도승에게서 훈련을 받다가 그가 사망하자 시내산 기슭에서 은수자생활을 하였다. 수십년간의 이 고립된 삶을 통하여 그는 앞서간 성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은수생활의 높은 경지에 올라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적에 시내산에 온 거하던 수도승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과 4년 후에 그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시 고립된

7) John of Climacus, *Scala Paradisi*, ed. S. Trevisan, 2 Vols, Turin 1941,
---, *The Ladder of Divine Ascent*,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New York 1982

은수자의 삶을 택하게 되었다.

그가 쓴 저서가운데 특히 두권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 한 권이 *Scala Paradisi*이고, 다른 한 권이 *Liber ad Pastorem*이다.

2) *Scala Paradisi*의 내용

이 저서는 전체적 내용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신비적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30계단을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은 포기(拋棄)이고, 마지막 30번째 계단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가운데서 *οιωσις θεων αγαπη*를 집중으로 다루고 있다.

클리마코스가 말한 상승의 30계단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계단들은 모두 세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첫째 부분은 ‘세계와의 결별’로 여기에는 1. 포기(拋棄), 2. 초연(超然), 3. 출가(出家)의 계단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덕의 실천으로 ‘Vita Activa’에 해당된다. 이것은 또 다시 1) 기본적인 덕목들, 2) 육정들과의 투쟁, 3) 고차원의 덕목들로 세분된다. 기본적인 덕목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4. 순종(順從), 5. 참회(懺悔), 6. 죽음에 대한 명상, 7. 비애(悲哀) 등이 있다. 나아가 격정과의 투쟁에는 (1) 대체로 비육체적인 격정들: 8. 분노(憤怒), 9. 원한(怨恨), 10. 중상(中傷), 11. 수다스러움, 12. 혀위(虛偽), 13. 낙담(落膽), (2) 육체적이고 질료적인 격정들: 14. 대식(大食), 15. 정욕(情慾), 16-17. 탐욕(貪慾), (3) 비육체적인 격정들: 18-20. 둔감(鈍感), 21. 공포(恐怖), 22. 혀영(虛榮), 23. 자만(自慢) 등이 순서대로 온다.

*Vita activa*의 고차원적 덕목들로는 24. 순진무구(純眞無垢), 25.

겸손(謙遜), 26. 통찰(洞察)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vita contemplativa*의 단계로서 하나님과 합일하는 다음의 네계단이 있다. 곧 27. 평정(平靜), 28. 기도(祈禱), 29. 무감동(無感動), 30. 믿음, 소망, 사랑(信望愛)이다.

클리마코스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공사역 개시 이전의 예수님의 30년의 삶에 견주어 30단계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영적인 삶을 ‘scala’(사다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야곱이 꿈에서 본 형상에 의거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이전 교부들의 전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cala Paradisi*의 30계단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1-3계단)은 ‘속세로부터의 도피’에 해당되고, 둘째 부분(4-26계단)은 ‘덕의 실천’에 해당되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27-30)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해당된다. 이는 각기 수도생활과 영성생활을 통한 천국의 사다리를 타려는 준비단계, 덕행의 윤리적 단계, 그리고 신비적 합일을 추구하는 종교적 단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덕행의 단계는 적극적인 삶인 *vita activa*에, 그리고 신인합일의 종교적 단계는 *vita contemplativa*에 해당한다.

비잔틴정교의 영성사상수립에 초석을 놓으며 후대의 수도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 저서에 나타난 근본사상은 기본적으로 *Phaidon*에서 플라톤이 표방한 아념, 즉 격정으로부터 정화된 영혼이 신을 관조하는 경지에 이르는 영혼의 성화이다. 하지만 클리마코스는 플라톤적인 영혼의 해탈에 다양한 기독교고유의 아념들을 가미하여 새로운 영성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의 '가까운 목적'인 '죽음에의 묵상'과 '먼 목적'인 '신을 닮아감' (homoiosis theo), 그리고 어원적인 정의인 '지혜에의 사랑'은 이 *Scala Paradisi*에서 직간접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묵상하므로 수도자는 일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과 죽음으로부터의 이러한 자유는 영원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된다. 즉, 그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연약함과 악들을 정복하고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신적인 세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melethe thanatou에 이른다고 해서 신과 하나되는 unio mystica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신비적 합일은 결국 신인간의 친밀한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런 기도의 완성에서 신에게로 가는 인간영혼의 상승과정이 성취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침묵과 기도를 통한 영혼의 상승과 신비적 합일은 Pseudo-Dionysos Areopagita를 거쳐 Proklos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클로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게서 일자와의 합일의 계기는 우선 신적인 신앙(Θεια πνευματικη)인데, 그것 위에 침묵과 기도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원인을 제외하곤 모든 것들이 다 기도 한다'라는 Theodoros von Asin의 명제를 인용한 그는 일자와의 신비적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단계에 걸친 철학적 기도 (Φιλοσοφος ευχη)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리마코스는 '어떤이들은 기도가 죽음의 묵상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한 인격내의 두 가지 성질을 오히려 칭송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양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마치 그의 인성과 신성의 경우처럼

인간에게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보았다.

상승에는 기도 외에 중요한 한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강조함에 있어서 그는 이방철학적 가르침들과 다른 기독교 고유의 사상을 보다 더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클리마코스는 vita activa로 나아가는 인간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 '신에 대한 묵상' (melethe theo),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였다.

이 사랑을 클리마코스는 관조나 영지(gnosis)를 내세운 에바그리우스와 달리 영적 수행의 최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제30계단을 기술하면서 그는 처음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최상의 단계요, 마지막 단계임을 역설한다. 그보다 약 2세기 전 서방교회의 어거스틴(Augustinus)은 이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적절한 길임을 주장했었다.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처럼 신이 '이성(νοῦ) 또는 이성의 피안(επεκεινα νοῦ)'이라면 그 신은 이성을 통하여 인식되겠지만, 신의 본질은 사랑이므로 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했던 것이다.

'사랑은 본질상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ο μοιωσις Θεων)'이며, 그 활동상 '영혼의 술취함'이라는 것이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찰컨대 이 모든 점에서 Klimakos는 플라톤의 기본사상위에 스토아학파의 사상과 신플라톤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한 독특한 기독교적 영혼상승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다른 종교들의 계단적 신비주의

어떤 신비주의든지 대개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말하자면 신비주의는 그 형태는 비슷하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신비주의와 유사한 타종교의 신비주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슬람의 Sufism, 선불교의 선(Zen), 힌두교 및 불교의 Tantra, 유대교의 카발라(Kabbalistik) 등이 그것이다.

A. 불교

「화엄경」의 일부인 「십지경」에 의하면, 이런 기독교의 수행단계와 유사한 「열개의 단계」가 있다고도 가르친다. 십지(十地, daśabhūmi), 곧 보살에 이르는 열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환희지(歡喜地) - 환희로 충만하게 된다.
2. 이구지(離垢地) - 더러움을 떠나서 청정해진다.
3. 발광지(發光地) - 내적인 빛이 발한다.
4. 염혜지(焰慧地) - 빛이 불길처럼 타오른다.
5. 난승지(難勝地) - 지혜에 있어 이기지 못할 경지에 이른다.
6. 현전지(現前地) - 사물의 본상을 직시하게 된다.
7. 원행지(遠行地) -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 천상의 세계에서 보살이 되는 단계에 이른다.
8. 부동지(不動地) - 더 이상 동요가 없다
9. 선혜지(善慧地) - 선하고 신령한 지혜를 발휘한다.
10. 법운지(法雲地) - 중생에게 진리의 비를 내리는 지혜의 구름 속에 머문다.

B. 기타종교

이런 사상은 불교 뿐 아니라 도교의 장자에게서도 나타난다. 「장자」(6:19)는 선인(仙人)에 이르는 득도(得道)의 일곱 단계를 말하고 있다. 힌두교 요가학파의 「요가경」(Yoga Sūtra)에서도 이와 유사한 여덟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신인합일의 신비주의적 수행의 과정을 제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종교들이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동방종교의 신비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동양신비주의는 신과의 합일에 나의 자아가 사라지지만 기독교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도리어 이런 비밀스런 하나님에서 원초적인 개별성으로 존립하는 것이고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 생각되고 만들어진 참된 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교적 신비주의는 unio mystica의 방식을, 기독교는 communio mystica의 방식을 취한다.

VII. 신비주의의 역사적 전개(II)-중세 이후 전개된 신비주의의 제 형태

중세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서양의 신비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 사랑의 신비주의

- 1) 신비주의는 고대말기에서 중세초기까지 금욕, 청빈 등을 화두

로 하여 전개되다가 12세기에 이르면 ‘사랑’의 개념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신비주의라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열망이 사랑으로 전화된 것이었다.

사랑의 개념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 있었다. 동방의 클리마코스는 *Scala Paradisi*에서 하나님께 오르는 궁극적인 방편은 ‘사랑’이라 했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술취함’이라 보았다.

서방교회의 이기스틴도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어서 이성적으로 포착되지 않고,⁸⁾ 그 본질이 사랑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

2) 이런 배경을 가지고 12세기 유럽에는 ‘사랑의 신비주의’가 등장한다.

이것은 요한 1서에 나온 두 구절, 즉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2)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4장 7~8절)는 두 구절을 중시하였다. 이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분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 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람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나온다. 이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 이 계시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자기와 하나되기를 열망하시며, 나아가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

Hugo of St. Victor는 자기 내면의 근저에 있는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자신을 껴안고 있다고 했다. 이 빅토르수도회의 신비주의에서

8) 선을 이성내지 이성의 피안이라고 본 것은 Aristoteles인데, 그에 의하면 선은 이성으로 접근 또는 인식 가능하다.

말하는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이다: 1)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간다, 2) 그곳에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된다, 3) 하나님에게로 올라간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4)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철저히 흡수되며 하나님안에서 영광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신비주의의 첫 단계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한 최상의 덕목은 소크라테스적인 ‘네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한다.

3) Bernard of Clairvaux는 「아가서주해」에서 인간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행한 사랑을 찾았는데 그로 인해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상을 마치 애인처럼 껴안고 입맞춤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간을 신부로 이해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랑의 결합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신비주의라고 보았다. 버나드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로 타올라야 한다고 했으며, 신비적 엑스타시스의 경지를 하나님의 품안에서 잠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황청에 큰 영향력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당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껴안은 사람’, 내지는 심지어 ‘성모 마리아의 젖가슴을 빠는 사람’으로도 묘사되었다.

2. 여성신비주의

1) 11세기 수도원에 머물러 있던 수도승들이 과거의 문헌들에서 배우던 것보다 더 많은 알고 또 경험하기 위해 방랑의 길에 접어들었다. 말하자면 수도원 규율의 숨막히는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방식의 구도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방랑방식의 대표적인

수도승들이 1084년 프랑스 Grenoble에 Bruno von Köln이 세운 Kartuse 수도회의 승려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녀들 가운데서도 방랑을 시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베네딕토수도원에서 남성의 지도하에 있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은둔자들처럼 교회에 떨린 작은 집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권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거처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방랑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정처없이 떠돌며 수도자들과 더불어 동냥을 하며 다녔다. 그들은 방랑자, 수도자, 그리고 집시 예술가들과 함께 했다. 이런 결식수녀회를 시작한 것이 배긴수녀회(Begine)이다. 하지만 13세기가 되었을 적에 교황청은 이런 탁발수녀회를 돌보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배긴회도 발전을 했다.

2) 하지만 여성신비주의는 누구보다 Bingen의 수녀원 Hildegard (1098-1179)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중세 독일 신비주의의 창시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탁월한 지식인으로서 교황과 황제들에게 300편 이상의 편지를 쓸 정도로 열심있는 지도자였고 Köln과 Mainz 성당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음악과 생물학 그리고 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그녀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며, 이런 우주는 사랑이라는 자궁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등 신비주의적 사상을 개진하였다.

이런 여성신비주의는 남성신비주의와 차별을 두려는 것 뿐 아니라 남성교권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배긴회소속의 Juliana von Lüttich, Hadewijch von Antwerpen(ca.1150~1200)수녀가 있다.

하데위치는 우리가 하나님마저 연인처럼 마음의 사랑을 할 수 있

다고 보았고 Mechthild von Magdeburg (1210-1282)는 그런 사상을 발전시켜 갔다.⁹⁾ 이런 여성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마저 연인처럼 마음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여성신비주의에는 신부적 형태와 모성적 형태가 있는데, 이는 다 사랑의 신비주의를 표방한다.

a. 신부신비주의란 예수님은 신랑, 성도는 그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인데, 특히 수녀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상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남편으로까지 생각되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이런 전통에서 12세기 후반에는 아가서의 형식을 빌려 신랑인 그리스도가 영적인 사랑으로 신부인 인간 영혼과 만나 나누는 깊은 내밀한 대화를 노래한 St. Trudberter Hohe Lied라는 신비주의적 가락도 등장했던 것이다.

b. 모성신비주의는 마리아의 성모이미지에서 빌려온 신비주의이다. 여성들은 Bernard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도 성모의 모성을 체험해 보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임태하고 그에게 젖을 주고 그를 돌보는 환상을 체험했다. 15세기 말 Antwerpen에서 나온 목판화 가운데는 여성들이 아기로 침상에 눕혀진 예수를 돌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 두 여성 머리위에는 'meditatio' 와 'oratio(기도)'라고 적혀있다.

9) 이 운동에 대해서는 Frank-Michael Reichstein: *Das Beginenwesen in Deutschland. Studien und Katalog*, Verlag Dr. Köster: Berlin 2001, Walter Simons: *Cities of Ladies. Beguine Communities in the Medieval Low Countries, 1200-1565*, Philadelphia 2001를 참고하라.

물론 이런 여성신부의자들의 행위들을 두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 수도회에서는 ‘저열한 은총을 추구하는 행위’ 요, ‘자신들의 영혼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오류’라고 비판했다.

3. 성적 신비주의

성행위를 신비주의적 수행과 연관시킨 극단적인 집단들도 있다. 물론 이런 형태는 인도의 탄트라불교나 밀교 등에서 보여지는 것이지만 중세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신비주의의 형태들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우애를 강조했던지, 아니면 영적 사랑을 강조한 것에 비해 교황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비주의 집단이 곧 아담교(Adamiten)이다.

이들은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나체생활을 추구하고 그런 원초적인 성생활을 복원하려고 한 집단들이었다. 혼히 예술사가들 가운데는(W. 프랜저스) Hieronymous가 그런 「쾌락의 정원」은 그가 아담교도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들 외에 12세기의 카타리파, 자유정신의 형제자매들(Die Brüder und Schwestern des freien Geistes) (수녀모임인 Begine 회와 그에 상응하는 남성수도자모임인 Beghards회를 합하여 일컫는 말), 16세기의 Toledo에서 결성된 Alumbrados(Iluminados, “계몽자”)도 이런 성향을 보여준다.¹⁰⁾

이들은 때로는 육체적 결합이 없는 성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또 색욕, 질투, 충동을 피한다고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이들이 은밀히 성행위를 통하여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아담교

도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의 결합을 통해 어떠한 억압에서도 자유로운 해방을 추구한다.

이들은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죄당했는데, 특히 ‘자유정신의 형제자매들’은 1311년 요한22세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당했다. 물론 1년전인 1310년 베긴회수녀 Marguerite Porete 가 파리에서 화형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1372년 파리의 같은 광장에서 베긴회수녀인 잔 다방통은 이미 죽은 한 Beghards회 수도자의 시체와 함께 묶인채 화형당했다.¹¹⁾

4. 수난신비주의

수난신비론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물고다 언덕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수난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묵상하며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쓰고 자기를 결박하고 채찍에 맞으며 또 십자가를 지는 등 고난의 방식에서 imitatio Christi를 한다.

12세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Schönau에 있는 베네딕트수녀원에 들어간 Elisabeth von Schönau(1129-1164)는 이렇게 주님의 via dolorosa를 걸으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행진에 참여한 대표적 신비주의자인데, 이런 고행을 하는 자들에게 Maria von Oignies(1177-121)에게서 처럼 종종 엑스타시스적인 성흔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10) 이에 대해서는 A. Hamilton,: *Heresy and mysticism in sixteenth-century Spain: the Alumbrados*. Cambridge: Clarke 1992를 참고하라.

11) Gertrud Hofmann/ Werner Krebber: *Die Beginen. Geschichte und Gegenwart*, Mainz/Kevelaer 2004

5. 사변적 신비주의

1) 신비주의의 하나의 큰 줄기인 사변적 신비주의는 Meister Eckhart(1260~1328)에게서 꽂을 피웠다. 그는 헬레니즘의 신비주의, 오리게네스, 그레고리 닛사, 아우구스티누스, 특히 프로클로스, 위 디오니시오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도미닉수도승으로서 인식을 통한 신비주의적인 길을 열었다.

그가 표방하는 기본적인 사상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진리는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이러한 사상은 다분히 소크라테스적이다.

(2) 하나님은 존재도 아니고 어떤 존재하는 자도 아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들보다 위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의 전 존재가 통찰자체인 순수한 통찰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가 하나님인 듯이, 또는 정신인 듯이, 또는 인격인 들판, 또는 그가 형상인 들판이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당신은 그를 그가 비(非)선인 것(Nichtgut), 비정신(Nichtgeist), 비인격(Nichtperson), 비형상(Nichtbild)인 들판이 사랑해야 한다. 가일충 그가 모든 둘인 것(Zweiheit)과는 구별되는 순수하고, 순전하며, 분명한 일자(一者)인 들판이 사랑해야 한다.

(3)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삶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영혼의 불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 불꽃을 지니고 있다. 이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4)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런 차이나 차별이 없는 고요한 사막’에 이르는 것이다.

이 모든 사상을 정리하면 “인간영혼의 내면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라는 신비주의적 사상이다.

그러나 엑크하르트는 이러한 사변적 논리에만 머물지 않고 vita activa를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아무리 고상한 신비주의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사건을 두고는 오히려 행동하지 않고 말씀만을 청종한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2) 하여튼 이러한 엑크하르트의 말은 위디오니시오스의 부정신학 사상과 일치한다. 부정신학(theologia negativa)은 (1) 하나님은 경험은 물론 이성과 언어, 심지어 존재의 피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을 넘어선 신비적 체험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피조물의 속성에 대한 부정적인 규정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부정신학적 신비주의는 신플라톤주의에서 발원하여 6세기의 Pseudo-Dionysius Areopagita에서 기독교적 의상을 걸치고, 14세기 독일의 Meister Eckhart, Seuse, Tauler, Margarete Ebner, 그리고 15세기의 Nikolaus von Kues로 내려왔다.

3) 엑크하르트는 결국 처형당했으나, 그의 사상을 도미 수도승들인 Tauler나 Seuse가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재판에 몰린 위험한 표현들을 피해갔다. Tauler는 자신의 신비적 경험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힘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자리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역시 기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

다고 주장한 Seuse와 함께 라인강유역, 그리고 독일 남부와 스위스 지역에 퍼진 <Gottesfreunde>(하나님의 친구들)에 속해 있었는데, 이 그룹에 속한 프랑크푸르트의 한 사제가 Tauler의 설교를 중심으로, 또 엑크하르트의 기본사상에 따라 *Theologia Deutsch*(「독일신학」)을 편찬해 내었는데, 그것이 근세 중, 후기 신비주의의 대표적이고 전이 되었던 것이다.¹²⁾ 이 저서의 내용을 루터는 거의 번안하다시피 하여 자신의 *Eyn deutsch Theologia*를 내었다. 하지만 이 그룹은 교황청과 다투지는 않았다.¹³⁾

6. 영적식사신비주의

근세 네덜란드의 남부지역, 플랑드르는 신비주의의 요람이었다. 브뤼셀부근에서 활약한 플랑드르신비주의를 대표하는 Jan van Ruusbroec (1293/4~1381)가 있었는데, 그는 방랑과 명상을 사랑하면서 독특한 신비주의 사상을 표방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적 배고픔이 국에 달해 우리를 통째로 잡아먹는다. 그는 탐욕스런 손님이고 참을 수 없이 배고 고프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탐욕스럽고 배고파한다. 영혼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잡아 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영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한 창조주이므로 차마 통째로 잡아 먹지는 못하고 다만 그를 잡아먹기 위해 열망하고 그를 향해 배고파한다.

12) 따라서 이 *Theologia Deutsch*를 'Der Frankfurter'라고도 칭한다. cf. Oliver Davies, *The Rhineland Mystics*, New York: Crossroad, 1989.

13) "German spirituality"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ter Press, 1983), 169-172

하나님 안에서 잡아 먹힌 우리 영혼은 그 안에서 죽고 그와 진정한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신비야말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영적 결혼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영적 결혼 찬미론」(*Die Zierde der geistlichen Hochzeit*)¹⁴⁾ 을 집필했다.

루이스 브로액은 주저인 *The Seven Steps of the Ladder of Spiritual Love*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단계를 말하는데, 크게 대별하면 영혼의 상승단계는 (1) *vita activa*, (2) *vita interna*, (3) *vita contemplativa*의 과정을 밟아 간다고 보았다.

하여튼 이런 영적 식사 신비주의는 마치 영혼의 정신병과 같다.

7. 새로운 현신의 신비주의(Devotio moderna)

1) 루이스 브로액의 사상에 공감을 하던 Geert Groote가 있었는데, 그 브로액처럼 '내면에서 비쳐지는 빛'을 중요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면서 선행과 자기 부정, 그리고 체계적인 명상을 강조했다. 그에게서 나온 운동이 소위 '새로운 현신운동'이라고 불리우는 *Devotio moderna*인데, 이것은 무엇보다 평신도들에게 영향을 준 운동이었다. 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에서는 순례와 같은 의적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상처, 그의 거룩한 죽적, 성모 마리아에 집중하며 거룩한 감정을 지니면서 욕망을 버리는 절제의 삶, 균형잡힌 현신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동의 삶을 살았으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시편을 암송하

14) *The Adornment of the Spiritual Marriage; The Sparkling Stone; The Book of the Supreme Truth*. Translation by C. A. Wynschenk. Introduction and Notes by Evelyn Underhill. London: J. M. Dent, 1916

기도했다. 무엇보다 경건한 생각을 복돋고 명상에 집중했다.

2) 이런 운동의 결과 가운데 토마스 아 Kempis의 *Imitatio Christi* 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신운동이 남긴 최대의 유산이었다. 이 유명한 당대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또 이 새로운 현신운동에서 나온 것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명상도(瞑想圖)가 있고, 또 목주와 목걸이, 혹은 레이스 조각도 명상에 사용되었다. 특히 명상도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비밀, 마리아의 일곱가지 슬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다섯상처, 그리고 죽음, 심판, 지옥과 천국 등을 동그란 형태의 그림들로 그려 넣은 그림판으로 수행자로 하여금 그 아래에서 종종 그것을 쳐다보며 독서하거나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명상도 가운데는 Hieronymous Bosch의 것도 있지만 가장 유명했던 것은 스위스의 대표적 수도자 Niklaus von Flüe(1417-1487)의 것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섯가지의 그림이 원형안에 있고 네 모서리에 추가적인 그림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¹⁵⁾

8. 미지의 구름(The Cloud of Unknowing)

영국의 신비주의는 여성인, 그것도 수녀들이 아니라 자유민들이 행하던 운동이었다. 이런 영국신비주의사상을 대변하는 책이 14세기에 나온 것으로 익명의 저자가 쓴 「미지의 구름」인데, 이 책은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15) Winfried Abel, *The Prayer Book of St. Nicholas of Flue: Mystery of the Center*, Christiana Edition, Stein Am Rhein, 1999

을 찾으라고 교훈하는 것이다.¹⁶⁾

위디오니시오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 저서는 모든 생각과 관념, 그리고 모든 이미지들이 망각의 구름에 덮여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의 별거벗은 사랑은 미지의 구름 가운데 숨어계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위디오니시오스의 신비주의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이 저서는 후 세대에 St. John of Cross에게서 Teilhard de Chardin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9. 신비주의사상의 특징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은 이러한 중세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이후 까지 내려오는데,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자로 흔히 Jacob Böhme(1575~1624)를 꼽는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는 자연철학적 신비사상을 전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역사상에 나타난 서양신비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을 정리해 보고 또 동양에 나타난 신비주의들을 포함시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1) 우선 영혼을 육체에서 떼어내려는 플라톤적 영향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마니교와 카타리파 처럼 - 이들은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해탈을 추구함), 반면, 정신과 육체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요가나 동양의 호흡술, 수도승의 춤 등).

16) *The Cloud of Unknowing*. Paulist Press translation. 2004 HarperCollins

2) 지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말하자면 의식의 깨달음 같은 것 - 영지주의 등), 감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사랑의 감정, 경건한 마음 등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운동이나 <새로운 현신> 등).

3)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아담교, 탄트라불교 등), 쾌락 즉 탄트라를 거부하는 이들도(금욕주의) 있다.

4) 자아인식과 자아통찰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고, 반면에 자아부정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5) 행동을 동반하는 능동적 현신을 강조하는 유의(有爲)의 길(서양)도 있고, 내려놓음, 고요함과 같은 내적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무의(無爲)의 입장(동양)도 있다.

VIII. 신비주의의 문제점과 그 비판

신비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우선 신비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점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의 표출로서 돈이나 명예를 위해 몸 부름치는 삶의 태도보다 귀한 의식임

2) 세속적 향락에 대한 초탈의식

3) 세속적 불의와 교회의 부정에 대한 비판적 정신: 상당수 신비주의자들은 교황청에 비판적, 제도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정신을 지니고 있다.

신비주의는 이런 긍정적 기저(基底)보다 부정적인 문제점이 많다.

1. 기본적인 문제점

1) 심리주의와 의식신학:

신비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근거를 두어 마치 불교처럼 마음의 사상에 머물고 만다. 이런 형태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으로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다.

종종 ‘마음기도’, ‘향심(向心)기도’, ‘침묵기도’ 등 다른 개념과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상기도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자아에서 떼어놓고 모든 것에서 초월하여 초월적 평안을 얻고자 한다. 이 기도는 최면 상태에서 자기 마음 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비성경적인 기도관이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관상기도는 자아를 중시하며 의식으로 기도를 이끌어간다. 이 기도에서는 자아가 의식하는 사고 즉 자기 마음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들의 신인 일자에게 하는 기도로서 이른바 ‘apophatic prayer’(부정신학적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관상기도 운동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르쳐 온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간구의 기도로서 아는 저급한 수준의 기도이며 관상기도야 말로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로서 높은 기도라고 강변한다.

이렇게 관상기도는 자기들은 보다 차원높은 기도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자아 최면은 소위 이교인들이나 동양세계에서 소위 도인들이 실행하는 인본주의적 기도다. 그 밖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므로 평안을 얻는다는 ‘집중기도(센터링기도)’, 내적 성찰에 집중하는

‘성찰기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의식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아 중심적 기도에 불과하므로 요가나 철학적 명상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종류들은 일종의 의식화작업이며, 신앙의 의식 주의화, 심리주의화이다.

2) 탈 신학화와 탈교리화, 나아가 성경적 기초의 부재 내지 약화:

신비주의는 인간의 의식중심적 사상을 개진하므로 첼라이에르 마하에게서 잘 보여지듯이 탈신학화내지 탈교리화에 빠진다. 이는 신앙과 신학을 성경과 성령님위에 수립하지 않고 신자의 영혼 속에 일어난 내적 직관과 경험위에 세우므로 결국 주관주의, 의식주의, 인간중심주의, 내재신학에 빠지게 된다.

3) 이교적 내지 세속철학적 기초:

앞에서 서술한대로 신비주의는 그 근원에서 멀리 인도의 종교사상, 플라톤의 영육이원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의거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성경적 기초가 미약할 뿐 아니라 해당초 성경에서 기원된 사상이나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4) 신앙고백적, 종교적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

Albrecht Ritschl은 ‘경건주의는 기독교를 브라만교와 수피즘과 아무런 차이를 없게 한다’¹⁷⁾고 말한 것처럼 신비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와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다. 실로 종교적 체험과 신비주의적 경험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 이런 공통분모를 제

시하면 종교간의 대화를 넘어서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기독교와 티종교, 특히 동방종교 간의 혼합을 만드는 혼합주의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영성문제에 있어서는 교파적 경계성이 없고 신앙고백적 경계성도 약하다. 중세적 천주교와 종교개혁적 개신교간에 별다른 경계성이 없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나우엔(Nouwen)같은 천주교도들의 명상집을 읽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영적 자기도취와 거짓된 영의 함정:

신비주의자들은 환상을 보고, 영음을 듣고, 입신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남다른 신비적 경지에 이르면 영적 자기도취와 교만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등진 내적 성찰, 영적 체험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식세계에 도취당하게 하고, 거짓된 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

6) 영적 권위부정과 심리주의적 성경해석: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영적 깨달음과 직관에 기초하여 결국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므로 심리주의적 해석에 기울고 만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신비적 경험을 제외하고는 어떤 교리나 신학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영적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는 진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극단적 주관주의에 빠져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가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깊게 깨닫게 되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17) Albrecht Ritschl, *Geschichte des Pietismus*, 3Bde., Bonn 1880-1886.

들이 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2. 비판

신비주의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진리의 그노시스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예 다음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내지 진리의 부재가 나타난다.

1) 그리스도가 없다.

신비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신인합일은 인간존재와 신적 존재가 존재적으로 합일된다는 사상이므로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류이다. 특히 이 신인 합일사상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간파 또는 악화되어 있다.

2) 성경이 없다.

신비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보므로 탈성경적이고 심리주의적이며, 의식신학의 형태를 취한다.

3) 인간이 없다.

신비주의는 인격적 인간이 신 안에서 무(無)로 바뀌든지 아니면 신이 되므로 인간의 자아가 소실된다.

4) 인격이 없다.

신비주의에서는 인간의 지나친 영성화를 주창하므로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인격가운데

서도 감성만 부각하므로 지성과 의지의 요소는 사라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다.

5) 윤리가 없다.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지 않는 모든 신비주의 형태들은 사실 윤리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내적 성찰과 신비주의적 상승만이 중요하지 윤리적 삶이란 저차원의 것일 뿐이다.

6) 현실적 삶이 없다.

신비주의는 현실을 도피하고 은둔적 방식을 취하므로 그들에게서 현실은 무시와 떠남의 대상이 된다. 천상으로의 상승만 있을 뿐이지 지상으로의 하향은 없다. 이런 논리에서는 변화산상에서의 그리스도만 중요하지 골고다언덕위에서의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

7) 역사가 없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인데, 신비주의에서는 역사성이 사라진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만 중요하다.

8) 믿음과 은혜의 구원이 없다.

신비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얻기 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이르고 인간의 수행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9) 주권적 하나님이 없다

신비주의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합일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므로 그것을 인간의 자율적인 영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 대상이요 인간에 의해 움직이는 객체가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10)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고 모두 인간이 자기노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비체험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자기노력의 결과요 자기만족으로 귀결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신비주의나 영성주의는 의식신학이요, 인간 중심의 신학, 인본주의의 신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를 인간의 수행이 빼앗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자리를 인간의 깨달음이 차지한다. 그것의 실천방법은 동방의 자연종교에 근거한 이교적 방법이다.

IX. 신비주의에 대한 대안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대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비적 신인합일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즉 *unio mystica*보다 *communio mystica*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궁극적인 실제 안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이다. 말하자면 내 자아에 대한 성령의 온전한 지배, 주님이 내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영적 교제이다.

이교신비주의에서는 신과의 합일에서 나의 자아가 사라지지만 기독교에서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 한다. 이것은 도리어 이런 비밀스런 연합에서 원초적인 개별성으로 존립하는 것이고 어찌면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 생각되고 만들어진 참된 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성경과 성령의 균형잡힌 신앙과 삶을 지향해야 한다. 성령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조한 이론 내지 생명력없는 논리 중심이 되기 쉽고, 성경없는 성령은 심령주의 내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물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성령님의 교과서이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신비적 영성운동 대신에 말씀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영성운동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만 말씀운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신비체험을 하였어도 한결같이 예언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과 결부된 체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혹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체험은 나의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신비체험을 사모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영에 의해서가 아

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온 것인지 알기 위해 성경적으로 검증해 봐야 한다.

다섯째, 영성운동보다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가장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육체와 구분되는 영적(spiritual)이 아니라 '성령적' (Spiritual)이어야 한다.

여섯째, 보다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의 경건한 마음상태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저에 믿음과 삶이 있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하기까지 살아야 한다.

일곱째, 전적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적 성찰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전적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 대해 복음의 중인,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즉 전인격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

11세기의 이탈리아사람으로 프랑스에 와서 Rouen 근처 Fecamp

의 수도원 원장으로 있던 John of Fécamp(~1079)은 *De divina contemplatio Christique amore*을 남겼다. 오랫동안 어거스틴의 저작으로 열려져 왔던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이 먹고자 하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또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비주의자들이 주는 한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갈급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신비주의적 경향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1005년 그가 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작품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랑은 두 강의 발원지인데, 하나는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는 강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즉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사랑도 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우리의 취미와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의식,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신비주의는 성경에서 떠난 운동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것의 열정은 세상을 향해서만 열정을 지니는 '시대의 자식들'에게는 좋은 경종이 된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여전히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다. 물론 기독교는 많은 신비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또 구원사에는 많은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사건이나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신구약성경 모든 것이 신비한 사실들로 가득차 있다.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적인 것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만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부터가 신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매우 신비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기한 종교요, 신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로 몰입하라는 교훈이 없고, 천국에 올라가는 길을 명상과 내성으로 된다고 하는 구절이 없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신비적 체험을 갖기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특별 은총을 주시기 위해 임하게 하신 은혜적 사건의 일종이지, 신비주의에서처럼 자기 스스로 신을 직관하고 소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경과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것들은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보여주는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모세나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처럼 고독과 안식의 들녘, 변화와 영광의 성산에서 떠날지 말고 애굽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참고도서

- Winfried Abel, *The Prayer Book of St. Nicholas of Flue: Mystery of the Center*, Christiana Edition, Stein Am Rhein, 1999
- Charles Morris Addis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Mysticism*, 1918
- John Wright Buckham, *Mysticism and Personality*, in: *Journal of Religion*, Vol.1, No.6, 1921
- John of Climacus, *Scala Paradisi*, ed. S. Trevisan, 2 Vols, Turin 1941,
----, *The Ladder of Divine Ascent*,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New York 1982
- The Cloud of Unknowing*. Paulist Press translation. Harper Collins 2004
- Oliver Davies, *The Rhineland Mystics*, New York: Crossroad, 1989
- “German spirituality”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ter Press, 1983
- Alastair Hamilton: *Heresy and mysticism in sixteenth-century Spain: the Alumbrados*. Cambridge: Clarke 1992
- Gertrud Hofmann / Werner Krebber: *Die Beginen. Geschichte und Gegenwart*, Mainz/Kevelaer 2004
- William Ralph Inge, *Christian Mysticism*, London/New York, 1899, p.5
- Jey J. Kanagaraj, “Mysticism” in the Gospel of John: An Inquiry into Its Background, i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20, No. 3 (Autumn, 2001)
- The New Dictionary of Catholic Spirituality, Liturgical Press, 1993
- Frank-Michael Reichstein: *Das Beginenwesen in Deutschland. Studien und Katalog*, Verlag Dr. Köster: Berlin 2001,
- Albrecht Ritschl, *Geschichte des Pietismus*, 3Bde., Bonn 1880-1886
- Walter Simons: *Cities of Ladies. Beguine Communities in the Medieval Low Countries*, 1200-1565, Philadelphia 2001